

주거육구

한 가족이 가진 주거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그들이 어떤 집을 선택하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개념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개념이 주거육구이다. 가족은 주거육구 달성을 위해 주거행동을 하게 된다. 이 주거육구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매슬로의 인간 육구 이론이다. 매슬로에 의하면 육구는 위계에 따라 5개수준이 있는데 낮은 수준의 육구가 합리적으로 충족되어야 높은 수준의 육구추구가 이루어진다고 본 것이다.

첫 번째 수준인 생리적 육구는 생존을 하려는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인 육구이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육구로서 먹고 숨 쉬고 움직일 공간이 있고, 쉬고 잠자고 재운을 유지하며 일정한 상태로 신체를 유지하고자 하는 즉 신체적 건강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항상성이라 부르는 상태에 대한 육구이다. 최소한의 생리적 육구가 충족되지 않는 한 인간은 생존할 수 없다.

현실

급등하는 부동산 시세와 집값, 전월세 등등 청년들은 생각만으로도 암울한 미래를 감출 수 없다. 바라보기만 해도 피로한 현실에서 공공 임대주택, 행복주택, 청년주택 등등 청년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다. 결국 또 이사를 다니는 떠돌이 신세일 수밖에 없다.

작업방향

과거 초가집 같은 처마가 있는 주거형태를 갖춘 농촌사회에서는 제비집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제비 입장에서는 인간이 천적을 막아주는 존재이고 제비는 해충을 잡아 먹어주는 이른바 공생의 관계이기도 하다. 산업화와 자본주의가 발달되면서 고층빌딩이 많아지고 처마가 사라지게 된다. 다시 야생의 어딘가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제비의 모습이 지금의 청년의 모습과 같다. 흉과 지푸라기를 3g 씩 삼켜 위액과 함께 조금씩 조적해 나가며 만드는 제비집은 처마가 없다면 비바람에 쉽게 무너져버릴 위태롭고 나약한 형상을 보인다. 인간의 자본에 대한 욕망과 켄트하우스와 같은 높은 곳에서 살고자 하는 상층육,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려고 하는 권력육 등을 제비집과 그 내부에서 흘러넘치는 크리스탈 비즈, 그리고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임대, 매매 현수막을 이미지로 수집해 새로운 창작물로 이시대의 지금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

어렸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 키우면서 가족을 이루는 게
당연했고, 그게 너무 행복해보였다.이제는 그냥 꿈 같은 얘기다. 결혼?
아아? 이제 나혼자 살아남기도 벅하다.

한국경제

PICK

"나혼자 살기도 벅차" ...고용·부동산 참사에 '결혼·출산' 꺼린다 [신현보의 데이터]

입력 2021.07.01 오전 10:02 수정 2021.07.01 오전 11:58

신현보 기자 >

1,175 454

카테고리

[신현보의 데이터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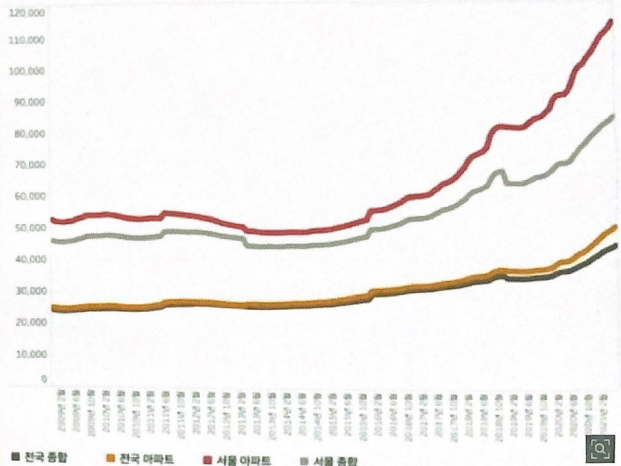
4년간 혼인·출산·집값·고용 통계 분석해보니 "한번도 본 적 없는 나라"

혼인·출산을 임기 내내 하락한 건 으분
부동산·고용 정책 역효과에 코로나 사태마저 가세한 탓
文, 시간제 일자리만 늘린 첫 정부가 될 가능성도
집값·고공행진에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가속화
자가>전세>월세 순으로 출산을 떨어뜨려
"월세 늘면 출산을 하라" 가속화·불가피"

주택 임대료가 집값...가파라지는 전세의 월세화

부동산 평균 매매값

출처 : KB리브온



서울경제

PICK

취직하는 데 29년, 돈 모으는 데 25년...내 집 마련 꿈 접는 청년들

입력 2021.06.26 오후 6:07 수정 2021.06.26 오후 6:09

강동현 기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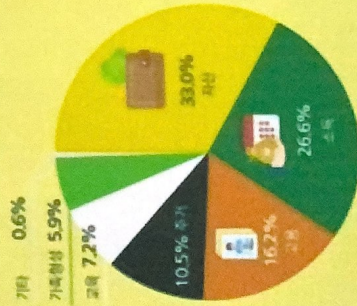
468

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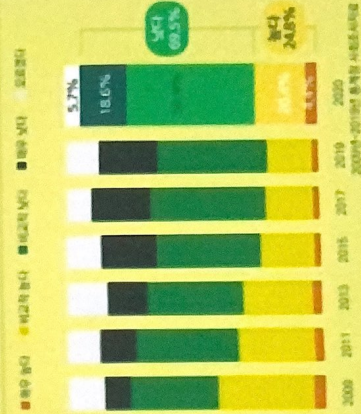
이웃에게 추천하기

경심련 "서울 아파트 가격 2배 가까이 올라"
취업 바늘 구멍 통과하고도 아파트 꿈도 못 꾀

청년세대 내에서 느끼는 불평등



본인의 계층상승 이동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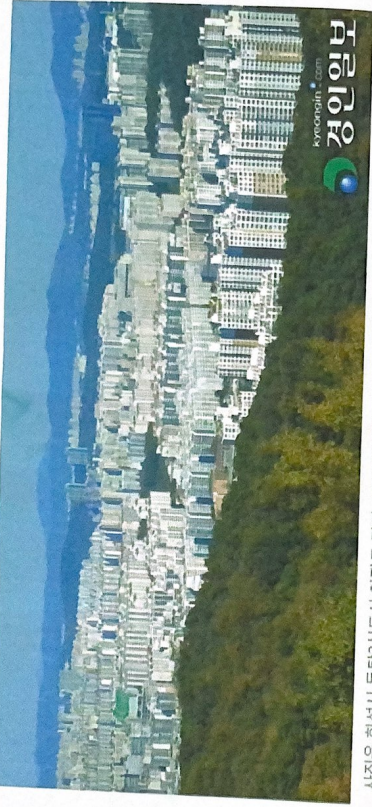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4.63으로 보통(5)보다 조금 낮은 편(10점 만점)

경기도 청년들 '집 때문에' 이사 다닌다

남국성 | 발행일 2021-06-14 제2면

+가-

| 작년 청년인구 이동 분석해보니



사진은 화성시 동탄2신도시 아파트 전경./경인일보DB

청년들이 화성시로 이동한 주된 이유는 주거 문제 때문이었다.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를 토대로 도가 청년들의 화성시 전입사유를 분석한 결과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등 여러 전입사유 중 주택이 35.3%를 차지했다.

화성시 다음으로 순 유입이 많았던 김포시도 주택이 전입사유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신규 주택이 많이 들어선 지역으로 청년 인구의 순 유입이 크게 나타났다는 게 도의 분석이다.

반대로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시군은 수원부천·안양·광명·성남시 순으로 조사됐다. 수원시는 지난 2019년 대비 1만2천488명이 줄어 도내 시군 중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순 인구 유출은 안양시가 7천88명, 광명시가 6천207명, 부천시 3천937명으로 가장 컸다.

인구 유입과 마찬가지로 주택이 가장 큰 전출 사유였는데 특히 광명시의 경우 전출 사유의 47.7%가 주택이었다. 지난해 광명시 철산동 철산주공 89단지(3천801가구)의 재건축 정비사업과 광명 뉴타운 사업지구 중 일부의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이곳 주민들의 이주가 시작 된 점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1. 청년, 주택 소작인의 삶

청년들은 지금 사는 집에서 무슨 감정을 느끼까.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청년들이 사는 곳에서 쫓겨날까 불안한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임차인으로 살아도 좋다"며 "쫓겨날 걱정 없이"라고 말했다.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4년까지 보장하는 '임대차 3법'도 이런 맥락에서 제정됐다.

문제는 청년들 사이에서 '쫓겨날까 봐' 불안한 감정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다. 15.1%의 청년 가구가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대한 불안감'에, 15.3%의 청년 가구가 '계약 기간 만료 후 집주인의 재계약 거부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물론 적은 수치는 아니라 무시하긴 힘들다.

그러나 청년 입장에서 더 찜찜한 건 비싼 임대료다. '주택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 정도'에 76.2%의 청년 가구가 부담을 느꼈다. 그 형태가 월세든, 전세 자금 대출이든, 매월 빠져나가는 한 몫팅이의 자금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청년은 사는 집에서 쫓겨날까 봐 불안한 것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임대료 부담에 짓눌려 있다.

임대료가 부담되는 지금의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꾼다. 청년 가구 72.5%가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계층과는 다르다. '자산 증식을 위해'라고 대답한 청년 가구는 8.5%뿐이다. 89.5%는 '주거 안정 차원에서'라고 답했다.

여기서 '주거 안정'은 '부담 가능성'의 최소화를 의미한다. 국회 예산처가 2015년 발간한 '주거 안정 정책 관련 실태조사'는 주거 안정의 첫 번째 요소로 부담 가능성을 꼽는다. 부담 가능성은 가구가 주거비를 지급 할 수 있는냐를 보여준다. 그 러니까, 매달 일정하게 빠져나가는 월세 비중이 크면 부담 가능성도 커진다. 최근 유현준 총리대 건측학과 교수는 청년을 '월세 소작농'이라 비유했는데, 청년들은 소작비와 다를 게 없는 부담 가능성을 상쇄하고자 내 집 마련을 바란다고 해 석할 수 있다.

다시 우리의 질문으로 돌아왔다. 청년들은 지금 사는 집에서 무슨 감정을 느끼 까. 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되고, 전세 대출 상환을 걱정한다. 이 부담 가능성을 최소화하려고 내 집 마련이란 구체적인 계획을 짜기도 한다. 즉, 청년들은 월마다 빠져나가는 '큰돈'을 최소화하고 싶어 한다.



근로자가 입주 예정 특이한 임대연수차 등
 특정요소에서 전하여오는 광역하지만 부채를 감당해 수계지라





양구 증심사경

품일체





한국리 강 주변에서 수집한 미끈가지, 진공(원) 덩어, 지푸라기



집학제를 활용해서 많은 친환경 종이 제작.



진돗개 리플러로 바래 뒤기 중일 작업



다음으로 경이유 정려방을 재각

* 2021. 7. 12 7. 22 / 문화공간 '역'

리화정기전 거류집 '시대상 반영' 시대적 미술의 정계 ~~2차~~ 전시
에서 방주 예정.

